

주일 오후 찬양 예배 대표 기도문 10월

주일 오후 찬양 예배 대표 기도문 10월, 지금 예배 준비에 참고해보세요. 10월은 공기가 한층 선명해지고, 마음도 다시 정돈되는 계절입니다. 개천절과 한글날로 나라를 돌아보게 되고, 한 해의 결실을 바라보며 감사의 고백이 더 자연스러워지는 때이기도 합니다. 주일 오후 찬양 예배는 한 주의 무게를 내려놓고, 찬양으로 마음을 열어 주님께 다시 시선을 고정하는 귀한 자리입니다. 아래 기도문은 10월의 흐름을 따라 다섯 번의 주일을 가정하여 구성했으니, 교회 상황에 맞게 문장과 대상만 바꾸어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찬양예배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연습’을 공동체가 함께 하는 시간이니, 기도할 때도 화려한 표현보다 마음을 모으는 고백을 우선으로 두면 좋겠습니다. 오늘 드리는 기도가 교회와 가정을 살리는 씨앗이 되길 바랍니다. 함께요.

주일 오후 찬양 예배 대표 기도문 10월 1 감사로 문을 여는 기도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 (시편 136:1)

주님, 10월의 첫 주일 오후 찬양 예배로 우리를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한 주의 먼지를 털어내듯 찬양으로 마음을 씻기시고, 우리의 시선을 다시 주님께로 돌리시는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가 오늘 드리는 노래와 고백이 습관이 아니라, 살아 있는 믿음의 응답이 되게 하소서. 주님, 먼저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립니다. 계절이 바뀌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주님이 정하신 때가 있음을 믿습니다. 숨 쉬는 것, 일할 자리, 곁에 있는 가족과 공동체, 크고 작은 보호하심이 모두 은혜였습니다. 잘 되는 날만이 아니라 흔들리는 날에도 우리를 붙드신 주님의 손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그러나 주님, 우리는 감사보다 불평이 더 빠르고, 믿음보다 염려가 더 크게 자라나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입술로는 주님을 높이면서도 마음은 세상의 계산에 묶여 있던 시간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찬양의 가사처럼 살지 못했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소서. 주님, 이 예배 가운데 교회를 위해 중보합니다. 성도들의 마음이 찬양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서로의 집을 함께 지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병상에서 예배를 사모하는 이들에게는 하늘의 위로를 더하여 주시고, 경제적 어려움 속에 있는 가정에는 일용할 양식을 채우시는 주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하게 하소서. 섬기는 손길들이 지치지 않도록 새 힘을 주시고,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들에게는 담대함과 사랑을 부어 주옵소서. 또한 주님, 10월의 절기와 나라의 시간을 맞아 이 땅을 위해 기도합니다. 갈등이 날카로워질수록 정직과 절제가 회복되게 하시고, 힘없는 이들의 눈물이 행정과 제도의 자리에서 외면당하지 않게 하옵소서. 직장과 학교, 가정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인의 선한 영향력이 빛나게 하시고, 우리에게 말기신 자리에서 작은 순종을 쌓아가게 하옵소서. 특별히 가정과 일터에서 예배자답게 말과 행동을 지키게 하시고, 미움이 번질 때마다 화해의 첫 걸음을 내딛게 하옵소서. 주님, 이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셔서, 예배가 끝난 뒤에도 찬양의 여운이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하루가 주님께 드려진 산 제사가 되게 하시고, 오늘 들은 말씀과 찬양이 한 주 동안 우리를 지키는 울타리가 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일 오후 찬양 예배 대표 기도문 10월 2 말씀을 붙드는 기도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시편 119:105)

주님, 오늘도 주일 오후 찬양 예배로 우리를 모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마음이 산만해지기 쉬운 시대 속에서, 찬양으로 생각의 소음을 잠재우고 말씀 앞에 서게 하시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감정의 고조로 끝나지 않고, 말씀에 뿌리내리는 결단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주님, 한글날을 맞는 10월에 ‘말씀을 읽고, 깨닫고, 행하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읽을 수 있음이 당연한 것이 아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성경을 펼칠 때마다 주님의 음성을 듣는 기쁨을 회복하게 하소서. 바쁜 일정 속에서도 하루의 첫 시간을 말씀으로 시작하게 하시고, 마음이 무너질 때마다 말씀으로 다시 일어서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의 내면을 비추어 주옵소서. 우리는 말씀을 듣기는 좋아하지만, 불편해지면 피하려 하고, 순종이 요구되면 다음으로 미루곤 합니다. 자기 의에 기대어 남을 판단했던 마음, 기도보다 핑계가 많았던 게으름, 하나님보다 사람의 평가를 더 두려워했던 순간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말씀 앞에서 낮아지고, 십자가 앞에서 다시 시작하게 하소서. 주님, 교회의 예배와 사역을 위해 기도합니다. 찬양대와 찬양팀, 안내와 방송,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섬기는 모든 이들에게 기쁨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우리가 ‘잘 준비된 무대’가 아니라 ‘거룩한 제단’을 세우는 마음으로 섬기게 하시고, 예배의 중심이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가 되게 하소서. 새가족과 오래된 성도가 함께 어울려 한 몸을 이루게 하시고, 상처 입은 이들이 정죄가 아니라 회복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주님, 또한 우리의 도시와 이웃을 위해 기도합니다. 외로움 속에 무너지는 마음들이 많습니다. 관계가 끊어지고, 마음의 병이 깊어지는 이들에게 주님의 평안을 허락하옵소서. 우리가 말로만 위로하지 않게 하시고, 손을 내밀어 함께 걸어주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보게 하시고, 작은 친절과 나눔이 복음의 길을 열게 하옵소서. 주님, 오늘 받은 말씀을 붙들고 한 주를 살아가게 하옵소서. 선택의 자리에서 말씀으로 판단하게 하시고, 유혹 앞에서는 말씀으로 물러서게 하시며, 상처 앞에서는 말씀으로 견디게 하소서. 우리의 입술에 찬양이, 우리의 손에 순종이 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일 오후 찬양 예배 대표 기도문 10월 3 다음세대를 품는 기도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신명기 6:5)

주님, 오늘 주일 오후 찬양 예배 가운데 우리를 세워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대가 달라지고 환경이 바뀌어도, 주님은 변함없이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찬양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 주시고, 다음세대를 향한 주님의 마음을 배우게 하옵소서. 주님, 가을이 깊어갈수록 교육과 진로, 관계의 문제로 고민하는 청소년과 청년들이 많습니다. 경쟁과 비교 속에서 ‘나는 부족하다’는 거짓말을 믿지 않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나는 사랑받는 자’임을 깨닫게 하옵소서. 부모와 교사가 지혜로 섬기게 하시고, 믿음의 어른들이 평가자가 아니라 동행자가 되게 하소서. 새 학기와 가을 사역이 이어지는 시기에, 청년들의 자리와 직장, 군 복무와 취업 준비의 길을 주님이 친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작은 성취에도 감사하게 하시고, 실패 앞에서는 ‘끝’이 아니라 ‘과정’임을 믿게 하소서. 주님, 우리의 죄를 고백합니다. 우리는 다음세대를 말하면서도, 정작 삶으로 복음을 보여주지 못한 때가 많았습니다. 가정에서의 말과 교회에서의 말이 달랐고,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 불안을 유산처럼 물려주기도 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부터 먼저 회복시켜 주시고, 말씀과 기도로 아이들을 축복하는 가정이 되게 하소서. 주님, 교회학교와 청년 공동체를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교사들에게는 지치지 않는 사랑과 분별을 주시고, 학생들에게는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예배가 재미로만 평가되지 않게 하시고, 진리가 마음을 붙드는 경험이 있게 하옵소서. 장학과 돌봄의 손길이 필요한 가정들을 교회가 세심히 살피게 하시며, 재정과 공간, 인력의 부족함이 믿음의 창의로 채워지게 하옵소서. 주님, 곧 다가올 수능과 각종 시험을 앞둔 수험생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잠 못 이루는 밤에 평안을 주시고, 노력한 것 이상을 기대하며 스스로를 몰아세우지 않게 하소서. 결과가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 주님 안에서 길이 열리는 것을

믿게 하시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용기를 주옵소서. 무엇보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 되심을 놓치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 오늘의 찬양이 다음세대의 고백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먼저 믿음의 본을 보이며, 가정과 교회가 한 마음으로 아이들의 믿음을 세우게 하소서. 주님이 시작하신 일을 주님이 이루실 것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일 오후 찬양 예배 대표 기도문 10월 4 교회를 새롭게 하는 기도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로마서 12:2)

주님, 10월의 넷째 주일 오후 찬양 예배로 우리를 부르시는 은혜에 감사합니다. 찬양으로 마음의 문을 열 때, 주님께서 우리 안의 굳은 생각을 부드럽게 하시고, 다시 복음의 중심으로 돌아오게 하심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가 교회를 새롭게 하는 시작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종교개혁의 정신을 기억하게 하소서. 사람을 높이는 자리에서 내려오게 하시고, 말씀 앞에 겸손히 서게 하시며, 믿음의 본질을 흐리게 하는 모든 습관을 끊어내게 하옵소서. ‘오직 은혜’로 구원받은 자답게, 교회의 이름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나게 하시고, 겉모양이 아니라 삶의 열매로 복음이 증거되게 하소서. 주님, 우리는 쉽게 편을 가르고, 말로는 정의를 외치면서도 사랑을 잃어버리곤 합니다. 정죄의 언어가 아니라 회복의 언어를 선택하게 하시고, 거룩함을 핑계로 차갑게 서지 않게 하소서.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이웃을 우리도 사랑하게 하시고, 교회의 울타리를 넘어 상처 난 자리로 걸어가게 하옵소서. 주님, 선교와 구제를 위해 기도합니다. 멀리 있는 나라의 아픔뿐 아니라, 우리 가까운 이웃의 가난과 고독을 보게 하소서. 재난과 전쟁, 분쟁으로 삶의 터전을 잃은 이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교회가 기도로만 머물지 않게 하시며 실제의 나눔으로 응답하게 하옵소서. 각 나라의 지도자들에게는 지혜와 절제를 주시고, 평화의 길이 열리게 하소서. 주님, 우리 각 사람의 삶도 새롭게 하옵소서. 가정에서의 말투, 직장에서의 태도, 온라인에서의 표현까지 주님 앞에 드리게 하시고, 작은 결정에서부터 주님의 뜻을 묻는 성도가 되게 하소서. 넘어짐이 있어도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루하루 거룩을 연습하게 하옵소서. 주님, 오늘 드린 찬양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예배가 끝난 뒤에도 주님의 임재를 잊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가 더 단순하게 복음을 붙들고, 더 따뜻하게 이웃을 품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일 오후 찬양 예배 대표 기도문 10월 5 추수와 선교를 올려드리는 기도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갈라디아서 6:9)

주님, 10월의 끝자락에서 다시 찬양으로 주님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 해 동안 씨 뿌리고 물 주던 시간을 돌아보며, 결실을 주시는 분이 주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노력과 성취를 앞세우기보다, 주님이 베푸신 은혜를 먼저 기억하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의 일터와 가정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보이지 않는 수고를 알아주는 이가 없을 때에도 주님은 우리의 땀을 기억하심을 믿습니다. 농사 짓는 손길, 현장에서 일하는 손길, 가정을 돌보는 손길, 공부하고 준비하는 손길 위에 하늘의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지친 마음에는 안식을 주시고, 서로를 향한 존중과 감사가 회복되게 하소서. 주님, 동시에 우리는 풍요 속에서도 쉽게 인색해지고, 남의 결핍에는 무더지는 죄를 고백합니다. 받은 은혜를 ‘당연함’으로 여기고, 나눔을 계산으로 바꾸었던 마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내 것’이 아니라 ‘맡겨진 것’임을 다시 배우게 하시고, 나눌수록 기쁨이 커지는 복음의 비밀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주님, 선교지와 이웃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가 소식을 들을 때마다 잠깐 마음 아파하는 데서 멈추지 않게 하시고, 기도로 기억하며 실제의 현신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복음이 필요한 곳에 문이 열리게 하시고, 선교사님들과 현지 동역자들에게 지혜와 보호를 더하여 주옵소서. 언어와 문화의 벽이 사랑으로 녹게 하시고, 복음이 말이 아니라 삶으로 전해지게 하소서. 또한 우리 주변의 독거 어르신, 이주민, 장애를 가진 이웃, 돌봄이 필요한 가정들을 우리가 지나치지 않게 하시며, 교회의 섬김이 꾸준하고 성실하게 이어지게 하옵소서. 주님, 마지막으로 우리를 파송하여 주옵소서. 찬양예배에서 받은 위로와 결단이 월요일의 현실에서 사라지지 않게 하시고, 작은 자리에서도 진실하게 주님을 증거하게 하소서. 말보다 먼저 삶으로 복음을 보여주게 하시고, 낙심이 올 때마다 주님의 약속을 붙들게 하옵소서. 주님, 오늘 예배 가운데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선을 행하게 하옵소서. 필요할 때마다 예배 말씀을 다시 들으며 마음을 다잡을 수 있도록 아래 링크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더 많은 기도문 보러가기:

[대표 기도문 나눔터] <https://prayer-church.co.kr/>